

비추다

2주차: 길을 밝히다

요한복음 8:12, 시편 119:105, 이사야 11

2022년 12월 11일

공지 사항

- + 크리스마스 축제 | Hot Cocoa Bar (다음 주에 팬케이크)
- + Shelter Worship Night 크리스마스 에디션 | 이번 주 수요일 // 오후 5:45 저녁 식사 + 어린이 공예 코너 + 안뜰 조명 + 가장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스웨터 착용 + 오후 6시 30분 예배

메시지

- 지난 주, 우리는 빛을 바라보며 비추다(일루미네이션)이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....
- 그리고 우리는 인류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둠과 혼돈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.
-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질서와 빛을 가져오십니다.
- 그리고 나서, 우리는 인간이 혼돈 속으로 다시 몸을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.
- 인생은 혼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.
- 관계, 직업, 재정적, 정서적, 신체적.
- 고장난.
- 어둠.
-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신약성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었습니다.
- 우리가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동안 예수님께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.
- 요한은 말 그대로 그렇게 말합니다.
- 그러나 조금 후에 이야기가 시작되고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. • 요한복음 7장에서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.
- 이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끊임없는 추측이 있습니다.
-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정체와 의도를 추측합니다.
- 어떤 사람들은 "그는 좋은 사람"이라고 확신하고 다른 사람들은 반대말: "아니오, 그가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"(7:12).
- 예수가 메시아냐 아니냐는 질문이 몇 번 제기됨 (7:26-27, 31, 41).
-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가 "선지자"(7:40), 구약 성서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.

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일에서 모세의 입장이 되어 일어설 인물.

- 그러나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
 - 여러분 중 일부에게는 친숙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.
 - 예수께서 성전 뜰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.
 - 그가 앉아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해 그의 주위에 모였습니다.
 -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가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녀를 끌고 갑니다.
- 군중을 헤치고 그녀를 예수 앞으로 데려오자, 그들은 그에게 도전한다.
- 보세요, 그들의 법은 이 여자를 돌로 쳐죽이도록 요구했습니다.
 - 그들의 종교는 그것을 요구했습니다.
 - 그러나 이 시점에서 예수는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.
 - 그는 사랑, 은혜, 평화의 사람입니다.
 - 용서.
 -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WWJD라고 묻습니다.
 - 그러나 그들이 그에게서 배우기를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, 함정에 빠트리게 하기 위함
 - 그런 다음 예수님은 조금 더 몸을 굽히시고 흙에 글을 쓰기 시작하십니다.
 - 그가 무엇을 썼는지 또는 읽을 수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.
 -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마침내 대답할 때까지 계속 괴롭힙니다.
 -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할 때, 그는 우리에게 그의 더 잘 알려진 진술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.
- “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.”
- 바리새인들은 혐의를 벗고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한 명씩 떠나고 여자혼자 남습니다.
 - 그러나 군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.
 - 그들은 여전히 지켜보고 있습니다.
 -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하실 일을 여전히 궁금해 하고 있을 것입니다.
 -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. “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?”
 - 그리고 그녀는 "아무도 없습니다!"라고 말합니다.
 - 그런 다음 예수님은 “나도 그러합니다!”라고 말씀하십니다.
 - 그리고 그녀는 떠납니다.
 - 떠납니다.
 - 이것은 완전히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.

• 그래서...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...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

그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이나 철학과는 다릅니다.

• 그리고 이 사건 직후에 다음 번에 예수께서 이 사건 동안 군중에게 말씀하실 때 축제, 몇 분이었을 수도 있고 몇 시간이었을 수도 있지만 다음에 그들이 그를 볼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..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 메시지의 기준점입니다.

요한복음 8:12

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"나는 세상의 빛이다.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,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."

- 예수님은 "나는 세상의 빛이다"라고 말씀하셨습니다.
- 어둠이 있습니다.
- 혼란이 있습니다.
- 깨짐이 있습니다.
- 그리고 당신은 그 속을 걸어야 합니다...
- 조금 후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.
- 이것은 제자들에게 온갖 종류의 질문을 일으켰다.
-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?
-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?
- 깨짐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에게 있어야 합니다.
- 예수님은 신학적 파급 효과로 뛰어드는 대신 단순히 다시 말씀하십니다.

세상의 빛."

- "나는 세상을 비춘다."
- 이 에피소드는 요한복음 9장 39절로 이어지며,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왔다고 은유적으로 설명합니다.
- 즉, 우리가 어둠에 갇히지 않도록.
- 삽화: 빛에 대한 갈망
- 사도 바울이 아테네로 여행합니다.
- 사도행전 17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.
- 아테네는 철학이 최고조에 달했던 곳입니다.
- 모든 사람들은 아테네가 똑똑한 사람들이 어울리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.

- 질문에 답하는 곳이었다.
- 중요한 질문; 삶에 대해,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, 이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.
- 그리고 바우로는 며칠 동안 그곳에 갑니다.
- 그는 도시를 돌아다니며...거리를 걷고 관찰합니다.
- 그는 회당에 가고 장터에 갑니다.
-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.
- 그리고 나서 철학자들은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그를 아레오바고로 초대합니다.
- 그래서 바울은 그곳으로 가서 이 상징적인 설교를 합니다.
- 그는 인간의 상태를 설명합니다...이것을 들어보세요:

사도행전 17:26-27

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,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,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.

이렇게 하신 것은,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.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지만 하면,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. 사실,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.

- 그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는 것을 말하는 어휘를 사용합니다...
- (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...우리의 노력...우리의 실수와 실책...)
- 그러나 이 모든 가운데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길을 느끼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서 멀지 않습니다.

- 이제...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듭니다.
- 충분히 어두웠습니다.
-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. 나는 당신이 인생에서 더듬거리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!
- 그가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은유입니다.
- 유태인 어린이들이 외우고 내면화하면서 자란 시편이 있습니다. 이것 때문에 빛에 대한 갈망.
- 내가 듣고 암기한 첫 번째 구절 중 하나입니다.

시편 119:105

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

- 이것은 매우 풍부하고 중요한 진술입니다.
- 내 발에 등을 비추는 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.
- 당신은 내가 취하는 단계를 밝힙니다.
- 내 인생에서 내가 내리는 선택.
- 내 길에 빛이란, 다음을 의미합니다.
- 당신은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밝혀줍니다.
- 아마도 누군가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.

"주제에 대해 좀 밝혀주세요."

-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?
- 아이디어는 우리가 무언가에 빛을 비추면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
-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있습니다.
- 이는 빛이 어떻게 오류가 아닌 진실로 인도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.
- 무지보다는 지식을 말합니다.
- 여기서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.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것이 끝났습니다.
- 그런 순간은 이제 충분합니다.
- 나는 그런 결정을 충분히 내렸다.
- 나는 이 삶을 탐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.
-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. 아마도

우리는 내 삶의 주제에 대해 약간의 빛을 비출 수 있었습니다."

- 조명이 필요합니다.
-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. "세상의 빛"의 지위를 놓고 경쟁하는 많은 후보자가 있습니다.
- 17세기와 18세기에 세계는

"계몽"

- 계몽주의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?
- 그것은 고대 그리스인들의 지혜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.
- 많은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어둠을 피하고 빛을 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.

전 세계의 진정한 인본주의, 자율적, 철학적 빛.

- 그들은 암흑 시대를 벗어나 빛으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. 아니면 그랬습니까?

그것에 대해 생각한다면 그들은 실제로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.

- 그들은 사도행전 17장 경에 바로 아테네로 돌아갔습니다.
- 그들은 빛을 비추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고 있었습니다.
- 그런데, 이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.
- 우리는 깨달음의 산물입니다.
-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것입니다.
-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교육뿐이며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갈 것입니다.
- 또는 우리는 과학이 세상의 빛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.
- 과학을 통해 우리 우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마침내 우리는 세상의 악을 제거하고 들어갈 수 있는 초인종의 유형이 되십시오.
- 다른 사람들은 깊은 종교적 지식이 세상의 빛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.
- 우리는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,
계몽(이것은 신비주의/동양/뉴에이지 접근)입니다.
-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. 나, 나 홀로 세상의 빛이다!
- 예수님이 수백 년 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흥미롭습니다.
소크라테스, 플라톤,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들의 심오한 철학적 가르침을 살았고 말했습니다.
- 그러한 통찰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세상의 빛은 단 하나뿐입니다.
-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도 중요합니다.
- 요한복음 8장 20절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금고에서 이러한 상호작용을 하셨다고 알려줍니다.
그가 가장 공적인 부분인 여인의 뜰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- 이 법정에는 네 개의 황금 촛대가 있었습니다.
- 각자에게는 제사장들이 기름을 채운 금 대접이 네 개 있었습니다.
- 아직 진행 중이던 초막절 첫날 밤에
이 시점에서 새로 종료되면 이 촛대가 켜집니다.
-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해 내신 것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.
광야(따라서 "장막" 또는 천막),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.
-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,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.
- 사람들을 노예 제도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은 바로 이 독특한 빛이었습니다.
- 그리고 여기, 이 축제가 끝날 때, 이 촛불이 타오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.

신이 이끄는 방식을 나타냅니다. “나는 세상의 빛입니다. 나는 불기둥이다.

나는 당신의 발에 등불입니다. 나는 네 길의 빛이다. 나는 당신을 어둠밖으로 걸어 갈 것입니다.”

요한복음 8:12

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"나는 세상의 빛이다.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,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."

-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.

요한복음 8:31-36

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. "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,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.

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,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."

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. "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,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?"

예수께서 대답하셨다. "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.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.

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,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.

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,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.

-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.
 - 우리는 무료입니다.
 - 삼화/물체: 손전등/작업등
 - 이 조명에 위험한 무언가가...
 - 당신은 빛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?
 - 확실히 그렇죠?
 - 당신은 빛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.
 - 실제로 빛이 위험하다면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.
 - 자신의 길을 밝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?
- '어둠 속에서 더듬거리고 있다'?
- 빛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.
 - 문제는 전원을 켜는지 여부입니다.
 -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.
 - 그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밝혀줍니다.

-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.
- 사물, 사람, 경로; 그들은 빛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볼 수 없습니다.
-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합니다.
- 그분은 우리가 선포하는 메시지 그 이상입니다.
- 그는 또한 우리 존재의 모든 측면을 볼 수 있는 조명을 제공합니다.
- 우리의:직업, 교육, 관계, 가치, 욕구
- 그러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.

- 불을 켜고 빛나게 합니까?
- 그가 길을 밝히도록 허용합니까?
- 사람들은 왜 이것으로 고군분투하는가?
- 어두운 곳에서 불을 켜는 것은 옷장 속을 파헤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.
-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. 찾으러 가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.
-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면 어둠 속에서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.

당신이 피하고 있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.

- 이 세상에는 어두운 구석이 있습니다.
- 인생의 어두운 구석이 있습니다.
-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?
- 당신은 결혼.
- 당신의 감정.
- 당신의 욕망.
- 당신의 성적 취향.
- 네 과거.
- 어린 시절.
- 다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.
- 빛보다 한발 앞서 있으면 어둠 속에서도 계속 걸을 수 있습니다.
- 고통보다 한발 앞서 있으면 절대 속도를 늦출 필요가 없습니다.
- 그러나 그것은 단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것일 뿐입니다.
- 예수님은 '당신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면 결국 잃게 될 것입니다.

- 그러나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....
- 당신이 나에게 굴복한다면, 당신이 나를 믿기만 한다면,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있음을 믿으십시오.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놓아버리세요.'
- 그는 '그러면 당신은 정말로 삶을 찾을 것입니다.'라고 말합니다.
- 당신은 예상하지 못한 곳을 걷고, 가야 할 것입니다.
- 안락한 이 장소를 떠나 이 빛을 받아들여야 합니다.
- 그러나 그곳은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.
- 예수님이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까?
- 놓아주고 그분을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?
- 소녀가 있습니다. 그녀는 자신을 다치게 합니다. 그녀는 거짓말한다. 그녀는 공허함을 느끼고 채워지기를 원합니다.
- 남자가 있습니다. 그는 화가 났어요. 그래서 그는 일합니다.
- 고통을 숨기기 위해 술을 마시는 여성이 있습니다.
- 결혼이 있습니다. 작동하지 않습니다.
- 상처받은 마음이 있습니다.
- 당신의 삶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있는 어두운 곳은 어디입니까?